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온 누리의 임금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왕 대축일
성서 주간



그리스도왕? 그리스도왕!

“그리스도”를 다음 어학사전에서 찾으면 “Kristos. 머리에 성유 부음을 받은 자, 곧 왕王 또는 구세주救世主라는 뜻으로, ‘예수’를 이르는 말”이라 설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부른다면 그리스도왕은 동의반복입니다. 역전앞 같은 왕왕이라 풀이할 수 있고 구세주라고 부른다면 구세주왕이라는 말이 됩니다. 구세주는 괴로움이나 곤경에서 구해주는 사람이라 풀이하니 괴로움이나 곤경에서 구해주는 권력자라고 풀이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막연하게 느끼는 그리스도를 왕이라는 직책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1925년 12월 11일 비오11세 교황은 교서 [첫째의 것(Quas Primas)]을 통해 그리스도왕(Christus Rex)의 의미를 성대히 기리기 위해 재정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느님 나라를 인간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펼친 구세주이자, 구원을 위해 온 인류를 당신에게 부르는 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왕!입니다. 왕!에 우리의 눈길을 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느님 나라로 이끄시는 왕!

하느님 나라로 이끄는 지도자!

다윗의 후예로서 왕의 혈통을 이어받은 분이며(마태 1,1-17) 동방 박사를 통해 ‘유대인들의 임금’이 된다(마태 2,2). 유대인의 왕으로 고발되고(요한 18,37) 유대인의 왕 나자렛 예수라는 죄명으로 죽었다(마르 15,26). 그리스도 왕국은 복음 선포를 통해 지상에 펼쳐지지만(사도 1,8) 그 완성은 미래에 있다(1코린 15,24-25).

교회의 직무인 예언직 사제직 왕직 중 왕직!

교회의 왕직은 왕이신 그리스도의 왕직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자각에서 비롯된다. 교회의 왕직은 이 세상에 하느님의 주권을 확립해야 하는 사명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 하느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직무를 말한다. 바로 여기에서 교회가 사회문제에 참여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제2차 바티칸 공의회, 평신도 사도직에 관한 교령 참조).

그리스도왕 대축일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오늘 하루와 이번 주간을 알차게 보냅시다.



이상록 요한 신부 | 교구 홍보국장

주일 진레

제 1 독 서	2사무 5,1-3
화 답 송	◎ 기뻐하며 주님의 집으로 가리라.
제 2 독 서	콜로 1,12-20
복 음	루카 23,35L-43

골로 간다

신호열 요셉 신부/ 교구 정의평화위원회

“너 그러다가 골로 간다.”

어릴 적 자주 들었던 이 말은 듣기 싫은 말이었다.

왜냐하면 ‘까불면 죽는다’는 말과 같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죽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이기에 이런 심각한 경고의 말을 듣게 되면 움찔하게 된다.

그런데 이 말이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골로 가는 것이 왜 죽음과 직결되게 된 것일까?

골은 골짜기의 줄임말로 골짜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것이 이 말에 녹아들어 있다. 언제 어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했기에 ‘골로 간다’는 말이 일상에 들어오게 된 것일까?

우리나라는 1945년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이했다.

그 광복의 기쁨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나누어졌고 남한은 이승만 정권이 들어섰다. 그리고 미군의 군정이 시작됐다.

일본의 잔재를 몰아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미군정은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그대로 군이나 경찰 정치 요직에 등용했었고 그 결과 독립을 위해 싸워왔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끌려가 옥에 갇히거나 고문 받고 죽임을 당했다.

그 와중에 생긴 것이 보도연맹이었다.

보도연맹은 일제가 자신들의 식민지 통치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사상 교육을 해서 사람을 개조하던 기관을 다시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광복 당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사상들이 널리 퍼져있었고 이승만 정권은 사상개조를 위해 전국 각지에 보도연맹에 사람들을 가입시키기 시작했다. 문제는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빠져나가고 농사짓고 순박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 혜택을 준다는 말에 속아 가입했는데 그 사람들을 모조리 경찰이 잡아가서 죄 없는 사람들을 총으로, 칼로, 몽둥이로, 불로 잔인하게 죽였다. 전국에서 100만 명을 넘어 설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한국 전쟁이 나자 보도연맹에 가입된 사람들이 북한에 협조할 거라 생각하고 갇혀있던 사람들을 모두 사살하고 다시 수복한 땅에서 북한에 협력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시 죽였다.

우리나라 전역의 산골, 바닷가, 논밭이 피로 물들여졌다.

그로 인해 살아남은 유족들은 각기 자신의 지역에서 위령제를 올리고 있다.

죄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재산까지 가로챈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면서 우리나라의 기득권으로 자리 잡았고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과 가족들은 숨어 살거나 독립투사의 자손이라는 것을 숨겨야만 했다. 억울한 죽음을 당한 사람들의 자녀들은 원한을 간직한 채 해마다 위령제를 지내며 그때 당시의 상황을 되새기고 있다.

그렇다고 지나간 과거를 들추어내서 그 당시 가해자들을 처벌하자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억울하지만 그 당시 가해자들은 거의 세상을 등졌다. 그 후손들에게 어떻게 죄를 물을 수 있겠는가? 이제는 역사를 바로 알고 국가 폭력에 의해서 죄 없이 죽어간 사람들에게 대한 책임을 국가가 반성하고 지역마다 이뤄지고 있는 위령제를 국가 차원에서 실시하고 분노와 원망이 아닌 화해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래야 앞으로 억울하게 ‘골로 가는’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배둔공소 성전 재건축 기공식



배둔공소(전담: 이병우 루카 신부) 성전 기공식이 11월 6일 오후 3시에 최봉원 야고보 신부(교구 총대리)의 주례로 주일미사와 함께 봉헌되었다. 이날 기공식에는 김석좌 베드로 신부, 조영희 아나니아 신부와 거제지구 사제, 수도자 그리고 고성본당 신자들이 함께 참석하여 진행되었다. 배둔공소 신자들은 많은 분들의 관심과 주님의 축복 속에서 잘 이루어졌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다.

교구 신학생 부모 피정



교구 신학생 부모를 위한 피정이 10월 29일부터 30일까지 성주 평화계곡 피정의 집에서 진행되었다. 피정에 참석한 부모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음악을 통해 찬미를 드렸고, 자신의 내면 흐름을 보며 치유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신학생 부모로서 느끼는 보람과 금지 어려운 점 등을 서로 나누고, 격려와 공감하는 뜻깊은 피정이었다.

고성본당 정의의 거울 Pr. 2,000차 기념 주회

고성본당(주임: 한주인 마태오 신부) 그리스도의 모친 Cu.(단장: 김은진 수산나) 소속 '정의의 거울 Pr.'(단장: 심영섭 안토니오)은 10월 25일 2,000차 기념 주회를 가졌다. '정의의 거울 Pr.'은 1980년 8월 27일에 설립되어 남녀 5명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2년이란 세월 동안 하느님 보시기에 참 좋은 '정의'를 매일 갖고 닦아 반짝반짝 빛나는 '거울'을 만들어 단원 각자의 내면에 성모님을 모시고, 기도하며 실천해 왔다. 이날 2,000차 주회를 맞은 '정의의 거울 Pr.' 단원들은 각자 소회를 발표하며 앞으로 더욱더 성모님을 본받고 기도하며, 헌신하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굳게 다짐하였다.



명서동본당 연차총친목회



명서동본당(주임: 구성진 올리아노 신부)은 10월 23일 연차총친목회 행사로 레지오마리에 단원을 비롯한 206명의 신자들이 전주 초남이성지를 순례하는 시간을 가졌다. 초남이성지는 복자 유헌점 아우구스티노가 나고 자란 생가터로 호남 지역 천주교의 발상지로 여겨진다. 코로나로 인하여 순례의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었던 본당 신자들에게 이번 성지순례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 또한 죽음의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을 용기 있게 증명한 첫 순교자들의 신앙 모범을 통해 본당 신자들 모두 깊은 감동을 받고 신앙인으로서 마음가짐을 성찰해 볼 수 있었다.

반성과 고백-성탄 판공을 앞두고

김정훈 도미니코 신부

옛날에 한때는 매우 번성했던 벌의 왕국이 있었다. 왕과 귀족은 막대한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호화로운 궁전과 별장을 짓고 멋진 의복을 만들어 입었으며 매일 산해진미를 차려 놓고 파티를 열었다.

이 나라는 강력한 군대를 이용하여 외국을 침략하고 식민지를 늘려 나갔다. 그런데 많은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는 동안 대부분의 장수들은 후방에 굴을 파고 그 속에 숨어 있었다. 그렇지만 개선할 때에는 이들이 항상 선두에 서서 영웅처럼 행동했고 따라서 훈장은 언제나 그들의 차지였다.

재판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판사와 변호사에게 갖다 바친 뇌물에 따라 시비가 결정되었다. 상품 주문은 항상 넘쳐서 아래로까지 일이 끊이지 않아 모두가 사치스러운 생활을 마음껏 누릴 수가 있었다.

이처럼 악이 횡행하고 있는 벌의 왕국에 어느 날 승려가 나타나서는 모두가 잘못을 회개해야 한다며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벌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으며 깨끗하고 바르게 살 것을 맹세했다. 왕후와 귀족은 궁전과 호화로운 의복을 모두 팔아 빚을 갚았으며, 1년 내내 단 한 벌의 옷만 입는 등 검소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 군대가 해산하고 극장도 폐쇄되었으며 모두가 정직한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으므로 재판도 불필요해졌다.

이렇게 되자 파티와 연극도 사라져 호화로운 의상을 만들던 재봉사와 요리사, 목공, 석공, 조각가, 배우 등은 모두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심지어는 건물에 사는 것도 사치라 하여 벌들은 모두 나무 구멍으로 이사를 갔으며 하나같이 깨끗하고 바르게 살 것을 다짐했다.

그러던 어느 날 자신들의 식민지였던 곳의 벌들이 대거 공격해 와서 착한 벌들을 모조리 잡아가 노예로 부렸다. 착한 벌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전전긍긍하며 매일매일 비참한 생활을 영위해야만 했다.

—『꿀벌의 우화(개인의 악덕, 사회의 이익)』, 버나드 맨더빌

1714년 출판된 책의 1923년 개정판이 2010년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국부론』의 애덤 스미스보다 한 세대 앞서 이미 개인의 이기심과 이익 추구 행위가 국가를 부유하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금욕과 이타심은 위선이고, 욕심과 악덕이 경제를 살리는 원동력이라며 그리스도교 윤리를 정면으로 비판합니다. 최윤재 교수는 한비자를 연구하다가 맨더빌과 서로 비슷하다는 것을 알고 이 책을 번역했다고 합니다.

맨더빌과 한비자, 나아가 마키아벨리까지 공유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바라보는 인간관, 바로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를 토대로 맨더빌은 경제적 관점에서 인간의 악성을 마음껏 펼쳐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한비자와 마키아벨리는 권력자의 관점에서, 자신의 욕심에만 충실한 인간들을 지배하려면 힘과 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낸 주 너의 하느님이 다.” -탈출 20,1-2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실천하라고 가르쳐 주는 규정과 법규들을 잘 들어라. 그래야 너희가 살 수 있고, 주 너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곳을 차지할 것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나에게 불러 모아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나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자손들도 가르치게 하겠다.’ -신명 4,1,10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백성에게 당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기서 맺은 계약과 그분이 주신 법은 그분과 그분 뜻을 드러냅니다. 그 법이, 단지 백성이 지켜야 할 규정이 아니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의미이며, 그 법을 통해 백성이 하느님을 알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한비자와 마키아벨리에게서 보듯, 세상 군주는 백성을 지배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백성이 모르게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당신 뜻을 백성이 알게 하십니다. 그 법은 하느님 은총에 대한 백성의 응답이며, 그렇기에 백성은 법의 수혜자입니다. 법은 의무가 아닌, 백성으로서 합당히 실천해야 할 약속입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이집트 탈출 사건을 통해 당신이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분, 살리시는 분임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분께서는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시고, ‘백성화’ 되도록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집트 탈출로 외적 해방을 경험한 백성은, 광야의 순례적 삶을 통해 내적 해방을 구현해 나갑니다. 법은 이 과정에서 지침이 되며, 그 궁극 목적은 죄로 인한 죽음의 상태에 있는 백성을 살리는 것이고, 이는 신약의 법의 목적과도 일치합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구속처럼 보이지만, 세상 법이 죄성의 인간을 묶어두기 위한 억압의 틀이라면, 하느님의 법은 하느님 닮은 인간 구현의 길을 위한 기본 토대가 됩니다. 자유 없이 복종하던 노예를, 스스로 순종하고 섬길 줄 아는 자유의 백성으로 이끕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다가와, “스승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느냐? 선하신 분은 한 분뿐이시다.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가 “어떤 것들입니까?” 하고 또 묻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살인해서는 안 된다. 거짓 증언을 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그리고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젊은이가 “그런 것들은 제가 다 지켜 왔습니다.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하고 다시 묻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네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 젊은이는 이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떠나갔다. 그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태 19,16-22

성사 보라는 데 성사 불거리가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요. 반면, 본당에서 나눠준 십계명 양심성찰 표를 따라 성찰해 보면 죄 아닌 게 하나도 없는 것 같다고도 느껴집니다. 말 그대로, 사는 게 죄인 것 같습니다.

잘못의 ‘가능성’에 대한 성찰을 ‘반성’이라 하고, 잘못의 ‘현실’에 대한 성찰을 ‘고백’이라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원죄에 기반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에 기우는 경향으로 인해 실제적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온 젊은이가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하는 건 반성 없는 고백을 했기 때문 -죄지은 게 없어 고백할 게 없다고- 입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이 되려거든,”이라고 하시자 비로소, 자신의 내적 상황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단지 재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눈감고 보지 않으려던 죄의 가능성, 자신 안에 늘 있던 죄의 성향, ‘사람’이 되기 위해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뿌리를, 보려고도, 고치려고도 하지 않은 자신을 발견한 겁니다. 고해소에 들어가, 미사 빠진 것부터 시작해서 피상적인 죄만을 편하게(?) 고한다면 거기에는 반성이 빠져 있는 겁니다. 반면, 현실적으로 죄를 범했음을 인지하면서도, 인간이 다 그렇지 뭐, 나만 특별한가, 하며 고하지 않는다면, 반성을 빙자해 고백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반성하고 고백하는 것은 아프고 힘든 일입니다. 나 자신과의 치열한 씨름이 요청됩니다. 고뇌하지 않는 것, 변명하는 것은 도망입니다.

고뇌해야 치유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며 내 탓이오, 할 때, 치유가 시작됩니다.

(고해하는 이도, 고해듣는 이도, 힘들어야 합니다. 편하게, 행사 치르는 게 아닙니다.)

BBC는 “x xx가 사전 안전 관리가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xx당국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사고로 치부하고 있다”며 xx가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외신들은 참사가 벌어지기 전 접수됐던 112 신고 내용을 전하며, “첫 신고 때부터 상황의 심각성은 명백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MBC, 221102

(xx랜드 사태에,) “본의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흘러와 미안하다”

(외신회견 ‘말장난’ 논란에,)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 드린 점 사과드립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회개의 차원으로 발전되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는 차원으로 발전된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삶의 토양이 척박해진다.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사회 규범을 의식하는 책임적 허물 의식이 필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래디컬한 개혁성을 잃지 않기 위해 종교적인 죄의식이 필요하다. 전자는 도덕의 문제요, 후자는 신앙의 문제다. 신앙은 도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한다. -양명수, 윤희인의 서론 『악의 상징』, 풀 리프



기억할 선종 사제
김한주(마르코) 신부
2001년 11월 21일

교구장 서리 동정

수녀연합회 연수-사목교서 해설

일시: 11월 22일(화) 10:40
장소: 교구청

창원시의회 의원 모임

일시: 11월 24일(목) 11:00
장소: 교구청

레지아 활동계획 발표회

일시: 11월 26일(토) 19:00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그리스도의 성혈홍수 수녀회 미사

일시: 11월 27일(주일) 11:00
장소: 수녀회 본원

교구/본당

공소화장협의회 모임

일시: 11월 24일(목) 10:30/ 장소: 북천공소

11월 가나혼인강좌

일시: 11월 27일(주일) 13:00/ 장소: 교구청

위원회/기관/단체

교구 전례꽃꽂이회 월모임

일시: 11월 24일(목) 13:30/ 장소: 교구청

기 타

가톨릭청소년회 대구청소년수련원 수강생 모집

내용: 홈토킹! 화상영어 수강생 모집
대상: 7세~성인 및 실버
수업: 일대일 맞춤형, 기초회화, 여행 및 비즈니스 영어
문의: 053-593-1273

대안교육 산자연중학교 전입학안내

전입학설명회: 12월 3일(토) 14:00
겨울진학캠프: 23년 1월 14일(토)~15일(주일)
대상: 현 초6, 중1 / 문의: 054-338-0530

분더칼리지 캐나다 겨울영어캠프

기간: 12월~23년 2월 말
(주 단위 등록 및 연장 가능)
내용: 밴쿠버 명문사립 스쿨링/ 진로유학 멘토링
대상: 초4~고2
문의: 1577-5158/ 카톡: 분더에듀

원어로 읽는 성경 기초반(zoom강의)

기간: 23년 1월부터 1년간/ 수강료: 3개월 30만 원
시간: 수요일 19:30~21:30(히브리어/ 희랍어)
문의: 프란치스코회 010-4598-6912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생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신청: 수시로 접수 가능/ 검색: "사이버성경학교"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주교회의 '평신도 장학금' 2023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과 연구 지원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천주교 관련 학문 전공),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 12월 14일(수)까지,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cafl@cbck.kr) 접수
문의: 주교회의 평신도인재양성·기금위원회 02-460-7533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화&평 영성심리상담소" 안내

일시: 매주(수) 14:00~21:00
위치: 창원시 북면 감계/ 대상: 신자, 일반인
내용: 정신 심리 건강상담, 영적상담, 면담 고해성사,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고자 하는 분
상담자: 강윤철(요한 보스코) 신부
문의: 010-3551-2038

교구청 직원 모집

사목국에서 함께 일할 직원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모집: 1명
접수: 12월 9일(금)까지 도착분에 한함(우편 혹은 방문)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 신부 추천서, 보유 자격증 사본
주소: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천주교 마산교구청 사무처(우 51727)
문의: 사무처 055-249-7016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송구영신 피정

일시: 12월 31일(토) 16:00~23년 1월 1일(주일) 10:00
장소 및 주관: 마산가톨릭교육관
내용: 피정 및 송년미사, 송년파티, 해맞이행사, 신년 대축일미사
신청: 60객실(1~3인실) 선착순 마감
계좌-농협 351-0006-1186-53 (재)마산교구
▶백신 3차 접종 완료자에 한함
준비물: 세면도구(수건포함), 개인컵, 미사준비
문의: 055-221-1891, 010-7542-9631

교구 2023학년도 유치원 신입 원아 모집

교구 내 유치원 신입 원아모집에 신자분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성미유치원(고현성당) 거제시 거제 중앙로 19길 18
문의: 055-636-4288
- 성모유치원(명서동성당)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177
문의: 055-265-0791
- 성모유치원(옥봉동성당) 진주시 향교로 42번길 5
문의: 055-741-4855
- 성심유치원(중앙동성당) 창원시 진해구 중원동로 64
문의: 055-547-7187
- 소화유치원(문산성당) 진주시 문산읍 67번길 9-4
문의: 055-761-8755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미사 주례	문의
교구	11월 21일(월) 19:00	중앙동성당	목주기도 학교	박상운 토마스 신부(전주교구)		010-5072-5612
진주지구	11월 28일(월) 19:30	신안동성당	성령 하느님	백남국 요한 신부		010-3846-1980
청년	매주(수) 19:30	교구청 별관 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20:00 기도회(1주: 미사, 3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문의	비고
한국외방선교회	010-8715-2846/ kmsvocation@daum.net	해외 선교 사제를 꿈꾸는 청년

신타이그 순례 (지리산/도보) 성령 영성
상지순례 전문 여행사 엔젤투어

12월 12일 ~ 16일
베트남 성모발현지 (다낭) 3박 5일 125만원
베트남 상지순례 여행 모객 및 순례단체별 단독행사

대표 운영인 미타이
010-4999-3797
직접 안내·지도·교육·수배 합니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성악/기초발성 전문
성가, 가곡, 입시, 그로레스 운영
상남동 소재

김민형 요셉 010-5110-3039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팔용동)

구자룡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힐데갈드 화장품
이 화장품은 수녀들이 천안경으로 제배한 허브로 직접 만듭니다

힐데 로션 1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바나 60g
힐데 샴푸 200ml
힐데 크림 50ml
힐데 크림 15ml

특정 포교 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문의 010-5117-1160
0502-700-1140

가톨릭신문투어

- ▶23.1/9(월)~17(화) **이스라엘** 445만 원
- ▶23.1/21(토)~29일(주일) **셀특선 이탈리아** 430만 원
- ▶23.1/25(수)~28일(토) **일본 나가사키** 125만 원
- ▶23.1/30(월)~2/10(금) **이스라엘·이탈리아** 527만 원

www.cttour.org
■신청·문의 02-2281-9070

어디로 가야 하나

조정자 이사벨라 수필가/ 가톨릭문인회

혼자서 하염없이 걷다 보면 생각은 백지가 된다. 그때 어떤 것이 훑 들어오면 사정없이 거기에 빠져 버린다. 그것이 진리일 수도 있고 풍광일 수 있고 상념이기도 하다.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에 골몰했다가 한 걸음 나아가면 사물로 이동하고 거기서 점프하면 존재의 본질로 들어선다. 나는 왜 나이고 너는 왜 너이며 엄마는 왜 엄마이고 당신은 왜 당신이냐이다. 그 각각의 개성과 성질을 나와 연결해 보면 벽차고 외롭고 아프다.

나를 있게 한 엄마와 성장을 도와준 아버지와 부모님을 있게 해준 할머니 할아버지와 나도 어느새 엄마가 돼 있는 이것들이 한없이 신비롭고 감사하고 벽차다.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 서글프고 외로웠다. 생각해 보면 눈만 뜨면 이별이다. 이 발자국도 곧장 이별, 저 하늘의 구름도 곧 이별이다. 몸과 늘 붙어 다니던 이 옷도 해지거나 변형으로 이별을 하고 오늘은 내일을 내주면서 이별할 것이다. 지금 시각이 10시 50분, 이 숫자도 눈 깜박할 새 이별이고 보고 싶었던 너도 점점 잊히면서 이별하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차오른 새 살들, 어쩌면 이별을 통해 삶의 동력을 얻는지도 모른다. 잔인하다. 이 분명한 정념 앞에서 왜 나는 한없이 무너지며 허약했던가. 잠시 돌덩이에 앉아 걸음을 멈추었다. 보려고 하지 않아도 온통 눈동자를 차지해버리는 저 하늘, 구름이 만상만큼이나 다양하고 현란하다. 은근히 감미롭다. 탐색과 사색이 주는 선물인가, 일어나 배낭을 추스르고 걷는다. 생각을 하다 보면 언제나 두 갈래의 길이 나온다. 환상과 실체 전진과 포기 희망과 좌절 양보와 선점 선행과 게으름 정직과 핑계 미움과 이해이다. 어떤 방향이든 한쪽은 고달프고 한쪽은 편하다. 굳이 자신을 할퀴며 골몰할 필요가 있는냐는 자책도 지나고 보면 그분이 끌어준 방향일 수가 있고 반대로 놓아버린 때도 있다. 무엇이 이것 이었고 무엇이 저것이었는지는 모른다. 시간이 지나도 모를 수 있고 영영 모를 수도 있다. 여기서 나는 주저앉아버렸다. 칠혹 같은 어둠이 어디 한밤중만이던가, 멀건 대낮에 흰한 햇덩어리를 이고도 나는 캄캄하다. 어디로 가야 하나, 그때 환청이 울렸다. “딸아, 너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저 내가 마련해 놓은 이 풀과 나무와 꽃과 바람과 바위를 빠뜨리지 말고 보고 느끼거라. 거기에 내가 있겠다.” 하도 지친 나머지 헛것이 들렸을까, 아니면 망상일까, 하지만 울림이 너무나 컸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리며 한기가 스미더니 이내 체온보다 높은 온기로 혈관이 부풀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나. 이 변동은 또 무엇인가. 나는 이 느낌을 붙들었다. 하느님은 나를 죄인처럼 다루지 않았고 꾸짖지도 않았으며 조심스레 지켜보고 계셨다. 이것이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여기’이고 돌아가야 할 곳도 ‘여기’이며 나아갈 곳도 ‘여기’이다. 여기에 모든 에너지가 몰려 있고 내 생애 가장 충만한 곳도 여기이다. 나는 ‘여기’를 선물로 받았다. 불현듯 어떤 열망이 솟구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도경회 시집(가톨릭문인회장)

데카브리스트의 편지

릴케가 장미의 목소리로 사랑을 시도詩禱했다면 도경회는 아욱제비꽃의 울음 섞인 목소리로 사랑을 시도하고 있다. 도경회는 맑디맑은 새벽이슬이 머금은 여명처럼 눈부시게 아름답고 순수한 인간의 참사랑을 노래하는 이 시대의 소중한 서정시인이다.

—정순영 시인—

도마야, 나는 아직 너를 도마라고 부른다-김훈의 『하얼빈』

김은정 엘리사벳 교수/ 경남대학교

『하얼빈』은 김훈 작가의 가장 최근 작품이며,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작품이라는 이유로 화제가 되기도 했던 작품이다. 금방 짐작되듯이 『하얼빈』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안중근의 이야기이다. 이 작품은 ‘위인’ 안중근이 아니라 ‘인간’ 안중근에 초점을 맞추어 먼 하얼빈으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서른한 살 청년의 갈등, 두려움, 신념을 다룬다.

안중근은 ‘도마’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뿌리 깊은 가톨릭 집안의 장남이었다. 그가 믿고 의지하는 빌렘 신부는 안중근에게 세례를 준 인물이다. 그는 안중근의 내면에 귀를 기울이면서도 그 스스로 종교적 교리와 관계에서 고민을 거듭한다.

안중근은 동양 평화를 위해 반드시 이토를 죽여야 한다고 생각했고, 자신에게 그러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 준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 거사 후 헌병에 체포되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도 성호를 긋는 것이었다. 부활절 전에 사형 집행이 이루어져 부활의 은총을 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는 그는 여전히 신앙인이었다.

그러나 안중근은 ‘살인’을 저지른 죄인이기도 했다. 그가 행한 일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이었기 때문에 가톨릭 교구에서는 안중근을 거부했다. 빌렘 신부는 그런 교구의 명령을 어기고 안중근을 찾아간다.

도마야, 나는 아직 너를 도마라고 부른다. 네가 그런 말을 나에게 하고 싶은 마음을 나는 안다. 그러나 그것이 네 마음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네가 너의 영혼을 나에게 의지하고 싶으면서 나를 불렀을 때의 너의 마음을 나는 또한 안다. 그러니 너는 너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아라. 우선 너의 마음에 기도해라.

교회 밖의 일은 은총의 손길에서 벗어나 있는 것일까. 안중근이 유복한 삶을 버리고 ‘죄’의 길로 들어선 것은 고통받는 수많은 인간의 삶을 사랑하고 아파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 또 신앙인이기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고뇌도 없을 수 없었다. 신부는 그에게 마지막 고해성사를 준다.

안중근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빌렘이 몸을 앞으로 굽히고 들었다. 안중근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다. 사형수의 머리와 사제의 머리가 가까워졌다. 안중근의 목소리는 숨소리처럼 들렸다. 옥리들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목소리가 끊기고, 침묵이 길게 이어졌다. 빌렘은 침묵 속에서 안중근에게 고해성사를 베풀었다.

안중근은 누구보다 평화롭게 ‘도마 안중근’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 스스로 신앙이 있었고 자신의 영혼을 위로해 주는 빌렘 신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한 치의 망설임도 없었던 행동, 행한 이후 단 한 번의 후회도 없었던 청년 안중근. 이 청년 안중근을 도마 안중근으로 죽을 수 있게 해 준 그 힘처럼 이 교회 밖의 신앙에도 따뜻한 눈길을 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일지 모른다.

■ 한국천주교회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죄인으로 남아 있던 도마 안중근의 명예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그의 죽음 이후 80년이 지난 후다. 2000년 한국천주교회는 안중근의 행위는 ‘국권회복을 위한 전쟁 수행으로서 타당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공식적 입장을 밝히며 안중근을 받아들였다.